

그래미 벽 넘은 ‘골든’...K팝 새 역사 열다

케데헌 OST, 그래미 트로피 영예...한국 문화·관광 ‘신드롬’
블핑 로제·캣츠아이·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등은 수상 불발



그래미 오프닝 공연을 선보이는 로제(오른쪽)와 브루노 마스. /연합뉴스

이번 제68회 그래미 어워즈는 K팝의 현재 위치를 보여준 시상식이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OST ‘골든’의 수상을 비롯해 블랙핑크 로제, 걸그룹 캣츠아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까지 다수의 K팝·K컬처 콘텐츠가 후보에 오르며 그래미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로제는 브루노 마스와 함께 오프닝 무대에 올라 ‘아파트’를 선보였고, 캣츠아이도 신인상 후보 자격으로 대표곡 ‘날리(Gnarly)’ 무대를 펼치며 눈길을 끌었다.

‘골든’은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을 수상했다.

영상 매체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작품성과 음악성을 인정받은 작곡가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K팝 창작진이 그래미 트로피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미 어워즈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미국의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195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가수와 프로듀서, 녹음 엔지니어, 연주자 등 음악 분야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며, 수상자는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시상은 본상에 해당하는 제너럴 필즈(General Fields)와 팝·록·컨트리 등 음악 장르별 부문, 기술 부문 등으로 나뉜다. 제너럴 필즈에는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 ‘최우수 신인상’, ‘올해의 프로듀서’, ‘올해의 송라이터’가 포함된다.

그래미에서 수상한 한국인으로는 소프라노 조수

미와 첼리스트 김기현, 음반 엔지니어 황병준 등이 있다. 그러나 K팝 장르의 음악이 수상으로 이어진 것은 ‘골든’이 최초다.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와 ‘마이 유니버스’ 등으로 여러 차례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래미는 차트 성적이나 판매량보다 음악적 완성도와 작품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중 투표가 아닌 회원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중적 인기가 높아도 평단의 평가를 얻지 못하는 수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이번 ‘골든’의 수상은 높은 그래미의 벽을 K팝이 드디어 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수상을 ‘K팝의 첫 그래미 수상’으로 소개하며 “그동안 그래미에서 K팝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수차례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수상이 불발됐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장르(K팝)의 오랜 갈등을 마침내 해소했다”며 “케데헌은 2025년 가장 강력한 글로벌 문화 콘텐츠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다만 본상 부문에서는 모두 수상이 불발되며 한계도 드러났다. ‘골든’은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에서는 수상했지만, 본상 격인 ‘올해의 노래’에서는 트로피를 받지 못했다. 로제의 ‘아파트’도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레코드’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캣츠아이와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도 후보 지명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후보 지명과 무대 참여가 이어지며 그래미가 K팝의 영향력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1년 방탄소년단이 처음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오른 이후 반복된 도전 과정에서 K팝의 문화적·상업적 위상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미 투표권을 가진 팝페라 테너 임형주는 “K팝이 그래미의 벽에 균열을 낸 것은 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왼쪽부터 골든을 부른 오드리 누나, 이재(EJAE), 레이아미. /연합뉴스

명하지만 완전히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흥겨움이나 중독성을 넘어 예술성과 작품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스페인어권 음악이 오랜 시간에 걸쳐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쌓은 끝에 배드 비니가 ‘앨범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일상에서 배우는 ‘임방울 국악교실’

진흥회, 3월 3일부터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가 낳은 국악 임방울의 예술정신을 잇는 시민 국악 교육 프로그램이 올해도 이어진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오는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주 남구 광주공원 인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6층 판소리시민체험장에서 ‘2026 임방울국악교실’을 운영한다. 수강 신청은 2월 9일부터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한다.

임방울국악교실은 시민들이 판소리와 민요, 전통 기악과 무용을 일상 속에서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 국악 프로그램이다. 국악을 처음 접하는 시민부터 꾸준히 배워온 동호인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 국악교실은 판소리, 민요, 한국무용, 고

법·장고, 가야금병창 등 5개 강좌로 운영되며 각 강좌는 주 1회 2시간씩 진행된다. 강좌별 모집 인원은 20명 이상이다.

강사진은 국악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민요는 제23회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마미숙이, 판소리는 제33회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김정훈이 맡는다. 한국무용은 박선옥 전 광주여자대학교 교수가 지도하며, 고법·장고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인 한정민이 강의한다. 가야금병창은 제14회 임방울국악제 가야금 일반부 최우수상 수상자 이정아가 진행한다.

임방울국악진흥회 관계자는 “임방울국악교실



지난 임방울국악교실 송년국악한마당 발표회 장면.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제공>

은 국악을 공연장에서만 접하는 예술이 아닌, 시민의 삶 속에서 배우고 즐기는 문화로 확장해 온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국악의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시민과 호흡하는 생활 국악의 장을 꾸준히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수강료 월 1만 원(전 강좌의 1회 2시간).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국립민속박물관, ‘한류문화사전’ 영문판 출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팝은 물론, 한국의 음식·패션·놀이 등 문화 전반을 영어로 설명한 사전이 나왔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의 생활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류문화사전’의 영문판(Encyclopedia of Hallyu)을 펴냈다고 2일 밝혔다.

한류문화사전은 한류를 주제로 한 최초의 백과사전이다. 한국의 의식주 생활부터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영화 ‘기생충’ 등 한류를 대표하는 주요 문화를 사진과 함께 정리했다.

영문판은 2024년 발간한 국문판 사전을 바탕으로 총 347개 표제어와 사진 600여 장을 담았다.

각 표제어는 영문과 한글을 함께 표시했고 ‘김밥’(Gimbap)·‘떡볶이’(Tteokbokki)·‘라면’(Ramyeon) 등은 한글 발음에 준한 로마자 표기를 적용했다. 직역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개념은 뜻이

드러나도록 일부 표현을 순화했다. ‘오빠’·‘언니’·‘우리’ 등 한국 특유의 표현은 문화적 맥락을 덧붙여 쉽게 설명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번역 원고는 영미권 원어민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가 교차로 검수하며 문화적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완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사전은 한국 문화의 배경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도깨비·까치호랑이 등 전통 민속 문화와 함께 치맥·불닭볶음면, 떡방(먹는 모습을 촬영한 방송이나 영상물) 등도 쏘인다.

K-팝 응원 문화를 상징하는 ‘응원봉’의 경우, 한국 팬덤 문화의 형성과 의미를 설명해준다. ‘좌식’ 표제어는 바닥에 앉는 생활 방식의 역사와 배경을 함께 다룬다.

영문판 사전은 박물관 누리집, 국립민속대백과사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박물관 상품점에서도 판매한다. /연합뉴스



unesco

World Heritage site

Getbol, Korean Tidal Flats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www.getbolworldheritage.org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 산 명 :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면적	한계 (km²)	유산지역 (km²)	완충구역 (km²)
총면적(km²)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천시(605.24km²)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km²)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km²)의 약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딴해 갯벌



산과 섬에 둘러싸인 절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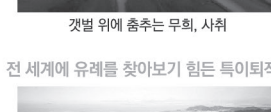
갯벌 위의 수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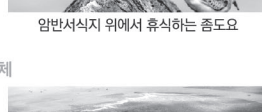
새들의 휴식처인 사취와 암반서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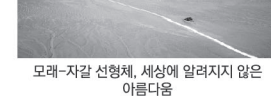
갯벌 위에 춤추는 무희, 사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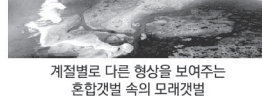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퇴적체



갯벌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형체, 해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움



갯벌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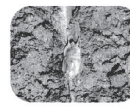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쾨뿔어 싸움, 염낭개,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콘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쾨뿔어 영역싸움



갯벌의 청소부 염낭개



염생식물의 역할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

